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막작으로 공연된 차이밍랑 감독의 '당나라 승려'는 관객들에게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관 페스티벌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며 모두 33편이 공연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 새롭지만 낯선 무대 ... 대중과 교감은 '먼 길'

## 베일 벗은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작품

공연장으로 들어서면 가로 8m, 세로 4m 종이 위에 붉은 옷을 입은 승려가 누워있다. 그는 1시간 넘게 꼼짝하지 않고, 검은 옷을 입은 화가는 목탄으로 그 붉은 종이를 채워나간다. 승려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움직이지 거의 없다. 2시간 20여분간 승려의 움직임을 쫓던 관객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공연장을 떠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이 개관 페스티벌 작품을 선보이며 베일을 벗었다. 지난 4일 개막작 '당나라 승려'를 시작으로 6일 현재 '열병의 방' 등 6편이 일반에 공개됐다.

상연작 중에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색다른 공연 형식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들과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작품들도 있었던 반면 난해한 내용과 구성으로 관람 자체가 고역이 돼버리기도 했다.

극장이 지난해 빈 페스티벌 등과 공동 제작한 '당나라 승려'는 대만 영화감독 차이밍랑의 작품으로 '반야심경'을 찾아 이역만리 길을 떠난 기나긴 승려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기존 객석 대신 대형 종이를 중심으로 200석 규모의 좌석을 별도로 마련했고, 관객들이 옮겨다니며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광장 쪽으로 난 대형 문을 모두 열어젖히고 진행된 공연은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로 활용됐으며 주인공이 아예 공연장을 떠나 광장, 시민들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의 철학서를 읽는 것 같다. 두고 두고 생각할 거리를 안고 간다"는 이도 있었지만 작품은 특별한 스토리와 무대 장치도 없는데다 비슷한 상황이 너무 느리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많은 관객들에게 '버티기 힘든 공연'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공연 중간 자리를 뜨는 사람도 많았고 공연 후에는 "이런 류의 작품만이 지속적으로 공연된다면 예술극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성희 예술감독은 "예술극장의 모든 메카니즘을 활용하고, 좀 더 스펙터클한 작품을 개막작으로 올릴

### 개막작 '당나라 승려' 난해 '열병의 방' '봄의 제전' 호평 외국인·서울·전문가 관객 대부분 일반관객과 거리 좁히기 관건

수도 있었지만 예술극장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작품"이라며 "향후 대극장(극장 1)에서 상연되는 '홍등기'와 '만 마리의 호랑이'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던진 작품은 예술극장이 자체 제작하고 세계 초연한 태국 작가 아밋차퐁 위라 세타쿤의 '열병의 방'이었다. 두 사람의 꿈 이야기와 태국의 일상을 두 개의 스크린을 통해 영화처럼 보여 주던 작품은 중반이 넘어가면서 관객의 상상을 뛰어넘는 장면들을 선사한다.

당초 문화장조원에서 공연될 예정이었지만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광주 CGI센터에서 공연된 로메오 카스텔루치 체세나의 '봄의 제전' 역시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 작품이었다. 스트라빈스키의 음악과 파격적인 발레 퍼포먼스로 알려진 '봄의 제전'의 음악을 활용해 무용수 대신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가 소 75마리 배 분진가루를 쏟아내며 진행되는 작품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광주여고에서 공연된 아르헨티나 극단 '리카르도 바르티스'의 '바보 기계'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새로움을 주지 못해 지루한 관극이 되어버렸다.

프랑스인 에반 존스씨는 "아밋차퐁 감독의 작품은 특히 인상적이었다"며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광경들을 무대에서 볼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내려와 '바보 기계'를 관람한 한정희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관람한 작품인데 잊을 수 없는 기억

을 남겼다"며 "외국에 가야 볼 수 있는 이런 류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공연된다면 아시아예술극장에 헤마다 오고 싶다"고 말했다.

공개된 6작품 가운데 무료 전시인 '떠돌이 개 in 광주' 제외된 5편의 작품의 경우 전체 1700석 중 1646명이 입장, 96.5% 점유율을 보였다. 주 관객층은 해외 공연 예술 전문가와 관객, 서울 지역 공연 관계자와 언론인들이었다. 사람이 관람한 작품들이 여러편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관람객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일부 공연을 제외하고는 지역 예술인들과 관객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그렇지 않아도 낯선 장르의 공연인데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수많은 작품이 상연됨에 따라 타겟을 정확히는 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했지만 손을 놓은 상태였다. 예술극장과 문화전당 측의 홍보 문제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 극장 로비 내에 관객들이 공간들이 거의 없는 점도 문제였다.

현재 33개 상연작 가운데 18%인 6편 정도 공개된 상황에서 예술극장의 전체 방향성이나 작품의 수준을 온전히 가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예술에 도전하려는 관객들의 노력과 더불어 극장측에서도 관객과의 접점에 대해 고민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지역 예술인 A씨는 "국내의 전문가들이나 공연 애호가들만 바라보는 프로그램으로 예술극장이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조건으로 흥행만을 노린 작품을 가져오는 것은 무리겠지만 좀 더 다양하고 열린 시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초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온 공연 전문가 B씨는 "개관 페스티벌 작품이 공금에 내려오는 했지만 다양한 작품들을 보는 편이라 작품에 대한 기대가 깨지면 다시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행사의 라인업이 중요하다"며 "이런 장르의 공연에 생소한 시민들과의 접점을 찾는 방법을 빨리 마련하는 게 예술극장의 발전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갤러리 D, 내달 14일까지 개관 기념전



김환기 작 '무제'

갤러리 D가 개관 5주년을 맞아 다음달 14일까지 개관 기념전을 연다.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2012년 이후 컬렉션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야요이 쿠사마, 김환기, 김종학, 산정 서세옥, 장재욱, 무라카미 타카시, 히로토 키타가 등이다.

절제된 화풍으로 서정적 세계를 그린 김환기 작가의 작품은 파리 거주시절(1960년대) 제작된 것들이다. 산, 강, 달과 같은 자연을 한국적 정서를 아름답게 조형화하며 꿈꾸는 듯 한 푸른색과 무한한 흰색을 화폭 위에 펼쳐놓은 작품을 통해 한국모더니즘의 진수를 선보인다.

색과 빛의 일렁임을 통해 몽환적인 풍경

을 선보이는 국내최 작가, 물감뿌리기 기법으로 생긴 자잘한 점을 이용해 경계를 알 수 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표현하며 무한한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병욱 작가의 작품도 출품된다. 수묵의 대비만으로 극도의 리얼리티를 재현해내는 장재욱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동시대 작가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 무라카미 타카시의 'Lotus Blossom'은 작가 특유의 경쾌함을 보여주고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은 편집적 강박증을 현란한 색채와 반복되는 패턴으로 풀어낸다. 자신만의 영혼 모습을 표현한 히로토 키타가와 조각 작품도 전시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문의 062-222-8011. / 김윙희 kimyh@kwangju.co.kr

## 자연으로부터 온 '절제·배려' 메시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21일까지 정일 작가 초대전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오는 21일까지 정일 작가를 초대해 '공존, 자연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정씨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인간들이 과도한 욕망을 부려 발생한 전쟁, 폭력, 가난, 기근, 환경오염, 원자력 사고, 테러 등 '부조화'를 가감없이 서술·나열한다. 또 자연에서 찾은 알파벳 형상, 사진 문자를 조합해 관람자들에게 현실에 대한 직시와 대안적 사고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씨는 '인간은 가치를 판단하고 절제·배려하는 '인간다움'이 우아하게 갖추어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olodomor'

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주제로 서울·일본 등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문의 062-383-0070. / 김윙희 kimy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소파**   **이태리가구, 소품**   **통나무가구**   **가구빌딩 지하~5층**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